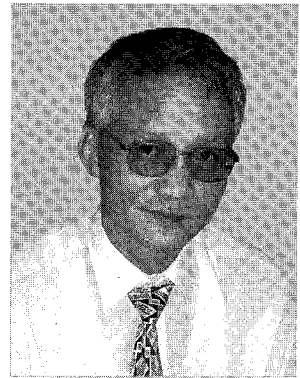


송/년/사

살모넬라성 질병 퇴치 근본에 충실해야



김 태 환 (유)한국원종 대표이사/분지 편집위원

2003년 12월 국내에서 첫 발생,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전 국민을 양계산물로부터 격리시켜 놓았고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업계 모두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정적 지출과 손실이 뒤따랐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피해가 심각했고 아직까지도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산업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크다.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들 상당수가 청정국 지위를 확보했다고 상상해 보자, 농림부 방역당국의 사무실 창문과 책상에는 깨진 계란으로 범벅이나 되어 있지는 않을까?

검역원 마당에는 갓 부화된 병아리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울부짖고(?) 있지는 않을까?

계열화 업체들은 도계장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중인 폐수를 영양제 대신 투여하고, 배합사료 대신 먹이던 도계장 부산물마저 떨어진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서 있지는 않을까?

종계장, 부화장, 산란계농장, 육계농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중단시킨데 항 의라도 하듯 조금 남은 경유로 돌리던 발전기가 서서히 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짓고 서 있

지는 않을까? 관련 산업은 풍비박산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중략)

아마도 궁극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원망도 잊은 채 풀어진 눈으로 가족들 손에 들린 군대 식판을 물끄러미 보고 서 있을게야,

이상은 언젠가 술자리에서 몇이서 주고받은 말이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대화인가! 지금시점 이후에는 제발 HPAI가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양계 선진국들 중 몇몇 국가에서도 HPAI가 발병하였으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로 청정국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세계수역기구(OIE)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방역 당국이 신속하고도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데 대하여 방역당국과 민간 방역본부, 협회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자부심을 느낀다.

특히 당시 여러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양계 경기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힘써준 고건 전임 국무총리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닭의 해 2005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품수라고 의심 받는 짓은 누구든 해서는 안되겠다.

나와 우리를 같이 망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자.

양계 농가에서는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는 양계산물 안전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해가 될 것이므로 소비자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생산에 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인식하자. 더불어 덩치 큰 업체들은 이제 덩치 값을 해야 할 것이다.

양계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관련 업계 및 농가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세한 육계농가나 종계장을 잘 요리하는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11월 이후로 정부당국이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추백리병 및 가금티푸스 박멸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접근 방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큰 하수구는 그대로 둔 채 그 옆으로 취수구를 시설해 봐야 비가 조금 많이 오면 하수구 물이 넘쳐 취수구로 유입되어 오염될 것이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HPAI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근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면 살모넬라 문제에 대해서도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2005년에도 업계 모두 일치단결하여 HPAI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가들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양계**